축산환경 개선 · 악취 관리 강화

전북도, 3개 분야 17개 사업 302억원 투자… 전년 대비 35억원 증가

전북도가 도민의 환경의식 향상에 발맞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해 302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축산환경개선 분야 7개 사업 206억, ▲가축분뇨 적정처리분야 5개 사업 42억, ▲분뇨처리 공공성 강화 5개 사업 54억 등 총 3개 분야 17개 사업 1,828개소 302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축산환경개선 분야는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악취 저감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및 악취저감제 지원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금년도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 공모 축산악취개선사업은 2021년 5개 시·군 97억 원에 이어, 22년도에는 8개 시·군 180억 원을 투자하게 돼 지역단위 축산악취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노력으로, 2021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율 전국 3위, 축산냄새 중점관리농가 축산악취 30% 감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 증가 등 축산환경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최 전북도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제55차 중앙 통합방위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도, 시·군 대표 축제 14개 선정

비대면 방식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 안전한 축제 목표로 경쟁력 강화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지정해 육성에 나선다.

22일 도는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시·군 대표 축제 14개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축제는 ▲전주비빔밥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익산서동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남원흥부제,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등이다.

도는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안전한 축제를 목표로 대표축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 대표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일상을 대비한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지정해 육성에 나선다.

특강을 진행한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축제가 일치돼 민간주도형의 축제로 구축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해 정체성을 확보한다면, 축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 이후에는 축제별로 전문가의 심층 컨설팅 및 현장평가를 연중 진행한다.

축제 핵심 프로그램 개발과 문제점 개선을 유도해 축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5월 부안마실축제를 시작으로 10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까지 14개의 대표축제가 대면·비대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기관 · 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전북도는 22일 올해 도내 유관기관 인권업무 추진방향과 인권분야 주요 안건 등을 논의하고자 '2022년 전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교육청,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기관·단체에서 올해 추진 중인 인권분야 주요 시책 등을 상호 공유하고, 2022년 전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인권분야 시책 발굴 등 기관·단체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도가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전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인권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관·단체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다양한 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권익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호상기자

더욱 편리해진 '전북투어패스 모바일권'

도, 위치 기반 여행 정보 제공 · 가이드북 기능 탑재 등 새 단장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 모바일권'을 업그레이드하고,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90여 곳의 유료관광지 무료 입장부터 맛집, 숙박, 체험시설 등을 24시간/48시간/72시간 동안 모바일 바코드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 예약,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5,900원(24시간권 기준)이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전북투어패스 모바일권은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반영한 여행 정보를 지원한다.

또한, 티켓 사용 시간 표시 기능, 관광지별 내비게이션 기능, 전화 연결 기능이 탑재돼 가이드북 없이도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새 단장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비접촉 인증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단말기 없이도 여행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새로운 모바일권 홍보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3일간 전주 한국도로공사수목원 카페 아르보에서 전북투어패스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촬영 행사를 진행한다.

4월 30일까지 스마트스토어 구매 후기를 작성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행사도 열린다.

/유호상기자

"첫마중길 지하화 · 50층 규모 전주국제금융센터 건립"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 대변혁 중점공약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네 번째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2가지 중점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우 후보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역 첫마중길~장재마을 구간에 '첫마중길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50층 규모 전주국제금융센터(JIFC)를 건립,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먼저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 후보는 "전북 동부지역 출입로인데다, 차량통행까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차도 조성이 시급하다"며 "전주역 뒤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낼 경우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서라도 막힘없는 교통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상은 시민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광장으로 활용한다면 첫마중길의 원래 취지도 살리고 첫마중길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00억 원을 들여 시민들의 편리는 물론 전주의 미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과 관련, 우 후보는 "50층짜리 전주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을 통해 전주를 제3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해외투자를 주업무로 하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자 세계 최고 국부펀드라고도 불리는 자산운영사 한국투자공사(KIC)를 기필코 전주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등 도내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제1금융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제2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이어 '제3금융 중심지' 전주 지정을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초석을 놓겠다는 복안이다.

/김윤상기자

"익산 왕궁 코스트코, 전주시민도 이용하게 될 것"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난 21일 오전,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첫 행선지로 호남권 첫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될 익산 왕궁물류단지를 방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초 전주 에코시티에 입점하려 했던 코스트코가 부지가격과 규모를 놓고 인허가권을 가진 전주시의 입장이 회의적인데다, 소상공인들과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에 들어서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있는 창고형 대형 마트가 아직도 호남권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다. 때문에 호남권 유일 코스트코 익산 입점 시, 인접해 있는 전주 도심이나 완주 신도시인 삼봉지구·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해 군산·광주·전남 지역까지 결국 모두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3,000명이라는 고용창출 효과와 상당 규모의 민간투자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주택 수요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호남권 유통강자 입점에 대해 진단했다. /김윤상 기자

"삼천동 · 효천지구 주민 생태문화경관 누리게 할 것"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상류부터"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삼천동·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생태문화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삼천 상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분야 정책공약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 도입'을 제시, 삼천 상류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는 습지보호지역, 생물 다양성 우수지역 등 생태계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인근 토지소유자, 점유자와 지자체 간 토지관리 내용에 대한 계약 이행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보전?증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 참여 및 확산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시원한 녹색도시, 전주'를 구상하고 있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기후 정의 실천조례 제정 및 예산 투입'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삼천변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녹색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동시에 삼천동·효천지구 일대 주민에게 생태문화경관까지 제공,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천변 주변을 무논으로 조성하거나 볏짚 존치 등을 통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생태문화를 더해 이를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돌려주려고 한다"며 "삼천 상류 시점이 그 출발점으로, 이는 시민의 자연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형 자연생태 공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생태하천협의회·전주문화재단 주최로 전주천 일원에서 열린 '흘러라 전주천!'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함께 문화와 자연생태를 담아 사람이 모이고 사람을 잇는 전주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 시민비서제 도입"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전주시 중앙동 등 원도심지 소상공인들과 코로나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인들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문 닫은 상가가 즐비한 중앙동 상가를 일일이 둘러본 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도록 돕고, 상인들의 매출이 오르는 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이 웃는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시민비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대료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 체육시설 신축 공사현장 안전점검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는 30일까지 도내 신축 공사중인 체육시설 건설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견실한 시공과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115개 사업에 1,028억원을 투입,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보급과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까지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체육시설인 컬링전용 경기장, 야구장, 펜싱아카데미 건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는 시·군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자재 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 문제와 직접 관련된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건설기계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 및 추락방지망 사용 여부, 비계의 설치 상태,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계도를 통해 조치하고,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 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도내 체육시설 사전 안전점검과 이행을 통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전북도는 22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전북도와 인수위 간 가교역할을 할 국장급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인수위 내 지역균형발전특위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장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패러다임 설정과 균형발전 정책 방향 수립, 향후 국정운영 과제 발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신원식 국장의 인수위 파견으로 인수위와 도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도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주요 현안 및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새정부에서도 전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